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6 | 면앙정가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면앙정가」는 길이도 너무 길고 비유적인 표현도 많아서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그렇지? 송순의 「면앙정가」는 **강호가도**의 선구적인 작품이라 문학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단다. 우선 **서사, 본사, 결사**의 흐름 속에서 면앙정의 위치와 주변 경치, 그리고 **춘하추동 계절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해.

아, 계절감을 잡는 게 중요하군요. 그런데 자연을 즐기다가 결사 부분에서 갑자기 임금님 이야기가 나와서 주제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질문이야!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속세를 잊고 신선처럼 지내는 즐거움(도교적 태도)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유교적 충의 사상)라고 생각**한단다. 이 두 가지 태도가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점이 이 작품의 핵심이고 시험에도 꼭 출제돼.

그렇군요. 그리고 **제월봉과 면앙정을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이나 학이 날개를 펼친 것 등에 비유**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표현 의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정적인 산세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표현이야. **비유적 표현을 통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 주는 거지. **비유적 표현뿐만 아니라 의인법, 대구법, 열거법, 설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야.

네! **계절별 풍경 묘사**의 특징과 **자연 친화, 충의 사상**이 함께 드러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6 | 면앙정가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무슨 생각을 하느라. 의인법.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인간의 감정을 사물에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며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제월봉)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 제월봉의 형세를 선잠을 막 깬 늙은 용의 머리에 비유함. **이 작품을 영상 또는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 구상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면앙정의 위치는 산봉우리의 일곱 굽이 중 가운데 굽이에 잡아야겠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학**(면앙정)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면앙정의 지붕) 벌였는 듯

▶ 서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대구법)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직유법.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자연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의인법, 비유법, 설의법, 대구법 등 여러 표현 방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 산의 다양한 모습을 열거법, 대구법을 활용하여 나타냄.)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 면앙정 주위에 둘러서 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습)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 >: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함.)

▶ 본사 1: 면앙정의 근경과 원경

<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흰 구름, 안개, 노을, 산 아지랑이가 산봉우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광경)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으)락'의 반복을 통해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형성함.)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저 뿌리네

가마(화자의 신분이 양반임을 짐작할 수 있음.)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에 우는 **꾀꼬리**(화자의 감정을 꾀꼬리에 이입함, 화자와 꾀꼬리의 동일성을 드러냄.) 교태 겨워하는구나]([ ]: 청각적 이미지)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알 수 있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된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수놓은 비단)**로다**(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함. 영탄법.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

황운(黃雲)(곡식이 익은 누런 들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알 수 있음. 화자는 단풍으로 덮인 아름다운 산과 곡식이 익은 누런 들판을 바라보고 있음.)

어부 피리(흥에 겨운 것은 화자 본인으로, 화자의 감정을 이입함.)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 있음.)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초목이 다 진 후에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광경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음.) >(< >: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함.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계절적 특성과 관련지어 드러내고 있다. '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본사 2: 면앙정의 사계절 풍경

인간 세상(속세)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뇨]([ ]: 대구법과 열거법을 통해 화자가 바쁜 이유를 제시함.)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 주변에 즐길 만한 것이 많음.)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느라 바쁘고 흥겨운 마음을 표현)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는 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드러남.)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자연을 즐기기에 바빠서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알려 줄 틈조차 없다는 의미.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자연을 즐기느라 다른 것에는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화자의 낙천적인 성품. 설의법)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청각적 이미지로 벗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냄.)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설의법을 통해 근심과 시름이 없음을 드러냄.)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취흥에 젖은 화자의 행동을 열거함.)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흥취를 드러냄.)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현재 화자의 상황을 태평성대로 인식함.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음.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현재의 생활을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자신을 신선에 견주어 자신의 풍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냄.)
강산풍월(자연. 대유법)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이백보다 자신의 풍류가 더 즐거움을 드러냄.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을 이태백과 비교하여 화자가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호연지기)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자신의 풍류 생활이 임금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화자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결사: 풍류 생활의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송순, 「면앙정가」

*산람: 산 아지랑이.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여기서는 눈 덮인 산천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옥해은산: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여기서는 눈이 내려 산천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아며: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며, 악기를 흔들며.
*악양루: 중국 동정호(洞庭湖)에 있는 누각으로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곳.

핵심 정리

■갈래: 양반 가사, 은일 가사, 서정 가사
■성격: 서정적, 묘사적, 자연 친화적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특징
■ 대상을 의인화하여 제월봉의 형세를 생동감 있게 묘사함.
■ 직유법과 은유법을 사용하여 면앙정의 형상, 시냇물의 모습, 면앙정 주변의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제시함.
■ 색채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바라보는 구름, 아지랑이 같은 대상을 묘사함.
■ 다른 인물과 비교하여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냄.
■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과 흥취를 나타냄.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앙정을 짓고 살면서 창작한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 면앙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이샷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형식과 내용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고,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면서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무단 배포 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시가 06 | 면앙정가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저 뿌리네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된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뇨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다만 ㉡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A]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

*산람: 산 아지랑이.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여기서는 눈 덮인 산천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옥해은산: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여기서는 눈이 내려 산천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아며: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며, 악기를 흔들며.

*악양루: 중국 동정호(洞庭湖)에 있는 누각으로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곳.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음보율이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여 작가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③ 인간의 감정을 자연물에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계절의 변화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통해 시간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⑤ 대구와 열거를 사용하여 자연 속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로소 찾았다.
② 쉴 사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느라 마중 나갈 시간이 없다.
③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만큼 내가 자연을 익히지 못했다.
④ 자연을 즐기기에 바빠서 다른 이들에게 길을 알려 줄 틈조차 없다.
⑤ 적당히 쉬면서 일을 해야만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을 경계하기 위해 ㉡을 선택하고 있다.
② ㉠의 내적 갈등이 ㉡에 와서 해소되고 있다.
③ ㉠을 얻기 위해 ㉡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에 안주하는 대신 ㉡의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⑤ ㉠으로 인한 행동의 결과 ㉡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화자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양반 문학에 등장하는 '자연'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의 삶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때 인간은 자연 친화적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그려지고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자연이 인간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로, 이때 인간은 자연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그 안에 몰입하는 희열을 느끼곤 한다. 양반 사대부들은 자연 속에서 풍류와 흥취를 느끼면서 삶의 긍정적 가치가 강화된다고 믿었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① 화자는 자연에 몰입하는 일상을 통해 희열을 느끼고 있겠군.
② 화자는 인간을 떠나오기 전의 자신의 삶을 어리석었다고 생각하겠군.
③ 화자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풍류와 흥취로 인해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겠군.
④ 화자는 현재 자신의 삶을 속세 사람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파악하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겠군.
⑤ 화자가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가꾸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겠군.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5.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노래 삼긴 사ᄅᆞᆷ 시름도 하도할샤 /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돗든가 / 진실(眞實)로 풀릴 거시면은 나도 불러 보리라
②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 유신(有信)한 강파(江波)ᄂᆞᆫ 보내ᄂᆞ니 ᄇᆞ람이다
③ 삭풍(朔風)은 나모 긋틱 불고 명월(明月)은 눈 속에 촌듸 / 만리변성(萬里邊城)에 일장검 집고 셔셔 / 긴 ᄑᆞᄅᆞᆷ 큰 ᄒᆞᆫ소릭에 거칠 거시 업세라
④ 이 몸이 주거주거 일백 번(一百番) 고쳐 주거 / 백골(白骨)이 진토(塵土) 되여 넉시라도 잇고 업고 / 님 향(向)ᄒᆞᆫ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⑤ 오백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 산천(山川)은 의구(依舊)ᄒᆞ되 인걸(人傑)은 간 듸 업다 /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ᄭᅮᆷ이런가 ᄒᆞ노라

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의 현재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연의 이치에서 위정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우고 있다.

고난도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면앙정가」는 작자 송순이 오랫동안의 관직 생활을 버리고 고향인 담양에 내려와 제월봉 아래 정자를 짓고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풍류 생활을 읊은 가사이다. 이 작품에는 면앙정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중심으로 한 풍류 생활과 취흥에 젖어서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자연 속에 묻혀 지내는 호탕한 정회가 나타나 있다. 또한 유학자로서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해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면모도 나타나 있다.

① '인간 세상 떠나와도'는 작자 송순이 오랫동안 종사했던 관직 생활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온 일을 가리키는군.
②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를 통해 화자는 면앙정 주위의 풍경이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아름답다는 점을 나타내는군.
③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를 통해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현재의 생활을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를 통해 화자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 생활과 흥취를 신선의 경지와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역군은(亦君恩)이샷다'를 통해 화자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는 것도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유교적 충의 사상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군.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8~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었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올올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A] ㉠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옅으락 짙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저 뿌리네
[B] ㉡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C] 된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D]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뇨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앙정가」

*산람: 산 아지랑이.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여기서는 눈 덮인 산천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옥해은산: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여기서는 눈이 내려 산천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아며: 노래를 부르게 하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며,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며, 악기를 흔들며.

*악양루: 중국 동정호(洞庭湖)에 있는 누각으로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곳.

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며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자연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계절적 특성과 관련지어 드러내고 있다.
④ 자연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⑤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추구하는 자연 친화 사상이 바탕에 흐르고 있다.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자연의 색채를 감각적으로 제시하여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행동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③ ㉢: 눈 덮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감탄을 나타내고 있다.
④ ㉣: 자연 속의 풍류 생활을 즐기고 있으나 곁에 벗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⑤ ㉤: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을 이태백과 비교하여 화자가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0.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대상의 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② [A]와 [B]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효과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③ [B]와 [C]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④ [C]와 [D]에서는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는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 흥취를 극대화하고 있다.
⑤ [A]~[D] 모두 색채 이미지를 동원하여 계절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난도 **1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사에서 시간이 작품에 관여하는 방식 중 하나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인간 세상 하계(下界)에서 신선의 세계인 선계(仙界)로 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과정에 순환적 시간이 개입하는 작품은 대부분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서사'는 선계로 들어가기 전의 도입 부분으로서 여기서의 공간은 세속적인 공간의 끝이며, 선계적인 공간의 시작이다. 「면앙정가」의 '면앙정'과 같은 공간들은 현실 안에 있으면서도 선계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간직하고 있다. '본사'에서 제시되는 선계의 시·공간은 조선 시대 사대부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관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계절의 순환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하계의 일회적 시간을 선계의 순환적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결사'에서 작가는 영원성 속에서 모든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난 순수한 공간을 토대로 선계의 질서에 부응하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상을 드러내어 표현한다.

서사 ⇨ 본사 ⇨ 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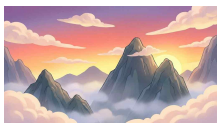
① 서사의 '정자'는 현실의 화자가 선계로 가는 과정의 이정표가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② 본사의 '초목'이 다 진 후에도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의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관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결사의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는 화자가 하계의 일회적 시간을 벗어나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군.
④ 결사의 '근심'과 '시름'에서 해방된 화자의 '호탕한 회포'는 조선 시대 사대부가 추구했던 가치라 볼 수 있겠군.
⑤ 결사의 '역군은이샷다'는 선계를 초월한 공간을 토대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라 볼 수 있겠군.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12. 이 작품을 짓기 전에, 작가가 아래와 같은 메모를 했다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면앙정을 근경과 원경으로 묘사함. ····· ①
- 면앙정의 모양을 '청학(靑鶴)'에 빗댐. ····· ②
- 각양각색의 산세를 구체적으로 묘사함. ··· ③
- 기러기들을 정적으로 묘사하여 분위기를 형성함. ····· ④
- 직유와 대구의 방식으로 시냇물의 흐름을 표현함. ····· ⑤

13. 다음 중 윗글에서 활용된 소재로 가장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②	
③		④	
⑤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뇨'에서 대구와 열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연의 흥취를 즐기기에 매우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①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등에서 4음보의 율격을 확인할 수 있고, 4음보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작품에는 전체적으로 면앙정 주변의 형세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하여 작가의 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제월봉', '꾀꼬리' 등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면앙정 주변의 풍경과 자연에 대한 흥취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시간의 속도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답 ④

㉮에는 자연을 온전히 사랑하며 누리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의 의미를 풀이하면, 자연의 흥취를 즐기기에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면앙정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 줄 틈조차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인간사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한가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겠다는 의사 표시이지만, 한편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데 대한 심리적 보상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 자신이 은거하고 있는 면앙정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듯한 느낌도 담아내고 있는 시구이다.

① ㉮의 내용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의 내용은 쉴 사이 없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였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만큼 자연을 익히지 못했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⑤ ㉮의 내용은 적당히 쉬면서 일을 해야만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3. 정답 ⑤

㉠은 바쁘고 고된 마음이라는 뜻으로, 시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여기서의 바쁜 마음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자연을 즐기며 여기저기 돌아보는 가운데 ㉡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의 표현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산과 들, 강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① **[매력적인 오답]** ㉠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위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이 작품에서 화자는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지 않다.

③ '번거로운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느끼는 '번거로운 마음'의 결과 ㉡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④ ㉡의 상황이 발생한 심리적 이유가 ㉠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을 더불어 즐기며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지 가꾸고 받들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은 아니다.

① 화자는 현재 자연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희열을 느끼고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② 속세에서의 삶에 대해 화자 스스로 어리석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기>의 자연관을 통해 양반 사대부들은 풍류와 흥취를 느끼면 삶의 긍정적 가치가 강화된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매력적인 오답]** '인간 세상 떠나와도'라는 화자의 말에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속세 사람의 삶과 대조적으로 여기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5. 정답 ②
[A]에서 화자는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②의 화자 역시 자연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만족감이 드러나므로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시름을 노래로 풀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③ 장수로서의 기개와 호탕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④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라(고려)의 패망을 한탄하는 마음과 인생무상을 드러내고 있다.

6. 정답 ⑤
화자는 자연 속에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예찬하고, 또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자연의 이치에서 위정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떠올리거나 배우고 있지는 않다.
① '그칠 줄을 모르는가', '간 데마다 승경이로다' 등에서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에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구절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정답 ②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는 자연을 즐기느라 아침과 저녁이 모두 바쁘다는 의미로, 그만큼 자연이 즐길 만한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앙정 주위의 풍경이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아름답다는 점을 나타낸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인간 세상'은 작자가 살았던 속세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에서 화자는 풍류를 즐기고 있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는 화자가 자신을 신선과 비교하여 풍류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역군은(亦君恩)이샷다'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 사상과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작자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8. 정답 ④
면앙정을 짓고 살아가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변화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자연 속에서 지내는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태도와 만족스러워하는 심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① 아지랑이가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집으로 삼는다는 것, 꾀꼬리가 교태를 부린다는 것 등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② 반복, 점층, 대구 등의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하며 표현하고 있다.
③ 사계절과 관련하여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연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자연 친화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

9. 정답 ④
㉣은 물음을 통해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곁에 벗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도 익었는데 벗이 없겠냐고 말하고 있다.
① '흰'과 '푸른'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통해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마를 재촉하면서 분주하게 가는 화자의 모습은,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보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외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은 눈 덮인 들판과 산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화자의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호탕한 회포가 자신보다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④
[A]~[D]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그에 따른 흥취를 드러내는 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분으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화자의 정서에 공감하는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① [A]에서는 구름, 연하, 산람을 의인화하여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② [A]에서는 구름, 연하, 산람을, [B]에서는 꾀꼬리를 의인화하고 있다.

③ [B]에서는 '우는 꾀꼬리', [C]에서는 '어부 피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있다.

⑤ [A]에서는 '흰 구름', '푸르락 붉으락', [B]에서는 '녹양', '녹음', [C]에서는 '황운', [D]에서는 '옥해은산'을 통해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정답 ⑤

'역군은이샷다'는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난 순수한 공간을 토대로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라 볼 수 없다.

① '정자'는 <보기>에 따르면 하계에서 선계로 들어가는 경계의 장소로 선계로 향하는 이정표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② 사계절의 순환을 통해 계속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어지는 묘사는 '사계절의 순환이 활용'되어 이상적 세계관이 지속해서 실현될 수 있음에 대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③ **[매력적인 오답]** 하계(인간)를 떠나와 선계에서 겨를 없을 만큼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에서 하계의 일회적 시간을 벗어나 사계절의 순환으로 나타난 선계의 시간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근심'과 '시름'이 아닌 '호탕한 회포'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은 <보기>에 따르면 조선 시대 사대부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관이라 볼 수 있다.

12. 정답 ④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 울면서 따르는가'에서 기러기들의 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에서 면앙정을 근경과 원경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구름 탄 청학이 /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이라는 구절을 통해 면앙정의 모습을 청학에 비유하였다.

③ '추월산,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등 구체적인 산의 지명을 열거하고, 그 산세의 모습을 '높은 듯 낮은 듯 / 끊는 듯 잇는 듯' 등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⑤ '쌍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에서 직유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시냇물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였다.

13. 정답 ⑤

윗글에서 '갈대꽃', '진 꽃(떨어진 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나무에 피어있는 매화는 확인할 수 없다.

①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에서 늙은 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자를 얹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에서 청학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른 것은 산람이라'에서 구름, 노을과 안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에서 피리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